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교육'

도교육청, 너도나도 공모전 수상작 발표

사진 대상 - 박현아 교사 '로켓꿈나무와 물로켓장인'

동시 대상 - '함께 수월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2 너도나도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발표했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가족간의 소통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사진, PPT, 동시 등 총 3개 분야 공모전을 진행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교육'을 주제로 실시된 이번 공모전에는 사진 분야(교직원) 150편, PPT분야(중·고등학교) 14편, 동시분야(초등학교) 411편 등 총 575편이 접수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1~2차 서면심사와 최종심사를 거쳐 각 분야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52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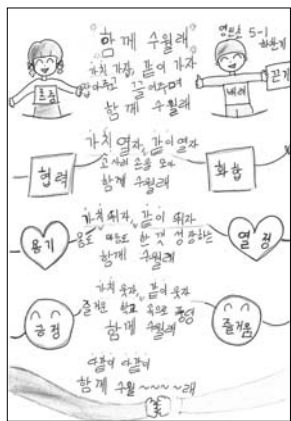
사진분야 수상자는 △대상에 로켓꿈나무와 물로켓장인 박현아(영진초 교사) △최우수상에 '선생님 너무 좋아요 김보람(동암초등학교 교사) · '푸릇푸릇 돌아라 김희진(익산부송유치원 교사) 등 총 18편이 뽑혔다.

PPT분야는 △대상에 '우리는 전라북도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열어가게 영선안입니다 김소윤(영선중) △최우수상에 '우리가 꿈꾸는 미래교육' 윤영빈(담양고2) · '미래에서 온 그대 김혜영(영선고) 등 총 11편이 뽑혔다.

동시분야는 △대상에 '함께 수월래 하찬기(영진초5) △최우수상에 '창의력 학교 이윤주(전주지곡초



사진분야 대상 - 박현아 교사 '로켓꿈나무와 물로켓장인'



동시분야 대상 - '함께 수월래'

5) · '행복한 미래학교에서는' 송주호(덕천초) 등 총 23편의 작품이 선정됐다.

한편 이들 수상자에게는 교육감상과 함께 대상은 60만원, 최우수상은 사진분야 45만원, PPT와 동시

는 각각 30만원, 우수상은 20만원, 장려상은 사진분야 10만원, PPT와 동시는 각각 5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특히 동시분야 대상작 '함께 수월래'는 공동체 의식에 대한 뛰어난 이해를 바탕으로 시의 시작부터 완결까지 '존중', '협력', '화합'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작품으로, 전북교육의 미래상에 대해 우리 가락의 흥겨움을 살려 창의적으로 잘 표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교육가족이 자유롭게 제작한 특색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고,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면서 "선정된 작품들은 향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교육청의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상자 명단은 전북도교육청 누리집(www.jbe.go.kr) 또는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장 미생물로 코로나19 예방

전북대 김수라 대학원생, 한-일 국제미생물학 심포지엄서 '최우수학술상'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수라 학생이 최근 여수에서 열린 '15차 한-일 국제미생물학 심포지엄'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장미생물 예방백신 관련 연구로 최우수 학술상을 받았다고 16일 전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미생물학회와 일본세균학회가 한국과 일본의 학문 발전을 위해 양국을 번갈아 가며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는 권위적인 국제 학술대회다.

이날 30명의 우수 연구결과에 대해 학술상이 수여됐다. 이 중 최우수학술상은 한국 대표와 일본 대표 각 1명씩 선발 김수라 대학원생이 한국 대표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뛰어난 학술

적 업적을 인정 받았다. 일본 대표로는 오사카대학 아츠키 다구치 교수가 수상했다.

김수라 대학원생은 'Covid-19 hamster model'을 통해 SARS-CoV-2 virus를 억제하는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의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장 미생물을 이용해 숙주 면역체계가 병원균을 잘 인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장 미생물 백신 개발에 관한 것이다.

한편 전북대 의대 홍성출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는 김수라 대학원생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장 미생물 예방백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김 대학원생이 최근 발견한 이 장 미생물을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물에 투여하면 이 동물은 코로나19 전혀 걸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강력한 전파력과 면역 회피 능력 또한 뛰어난 mRNA 백신으로도 코로나19 감염증이 극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가 코로나19 감염증 차단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은성 기자



16일 전주 라푸체에서 제2기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유초중등 교육발전, 민관이 함께

도교육청, 제2기 교육거버넌스 위원 위촉... 40명 구성

교육복지 개선 · 교육격차 해소 · 협력관계 제도화 다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6일 전주 라푸체에서 '제2기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거버넌스위원회는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초·중 등 교육발전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것으로, 교육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제2기 위원은 당면직 3명, 전북도청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위원 5명, 도의회 추천 위원 3명, 공개모집 위원 11명, 민간단체 위촉위원 18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오는 2024년 10월 31일까지다.

또 공개모집 위원은 14개 시군의 인구 구성 비율에 따라 전주 3명, 익산 2명, 군산 2명, 정읍고창·남원임실순창·김제부안·완주진안무주장수 각각 1명씩 포함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공개모집 위원 등 외부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위원장 등 임원진 선출,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운영 계획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전체위원이 참여하는 정기회의는 연 2회,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교육의제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회의, 운영위원회 등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교육거버넌스위원회에서는 △지역갈등 해소, 조정 · 중재 등 교육공동체 공존화가 필요한 사항 △지역 연계 교육사업, 민·관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 개선,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 민간단체와 연계한 교육협력 관계의 제도화 등의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에 선출된 거버넌스 위원들의 주요 경력과 활동을 보면 지역사회에서 교육관련 전문 경력을 바탕으로 사회공헌도가 매우 높은 분들"이라며 "이번에 선출된 거버넌스위원들이 전북교육청의 정책적 지지 기반이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부터 사후관리까지

도교육청, 25일까지 전주시역 15개 중·고교 대상 교육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를 받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210개 학교의 1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를 진행했다.

진단검사 내용은 △성평등 의식(가정생활 · 학교생활 · 직업생활 · 사회생활) △양성평등 실천 의지(행동 의도 · 실천정도) △성 인권 의식 등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진단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전주시역 15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후

관리 교육을 진행한다.

전문 강사가 각 학교를 방문해 진단검사 결과 해석 방법과 자기 점검, 맞춤형 성인지 감수성 전문교육 등을 하게 된다.

이서기 인성건강과장은 "진단검사는 맞춤형 성인지 감수성 교육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전문강사가 직접 학생 사후관리뿐 아니라 학교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결과 활용방법 및 지도 방안 연수를 통해 올바른 성 인권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ESG 비전

'GREEN WOOSUK' 선포식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가 ESG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에 따르면 우석대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ESG를 한발 앞서 실천하는 'ESG 선도대학'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우석대에 따르면 이날 전주캠퍼스와 진주캠퍼스에서 ESG 비전인 'GREEN WOOSUK' 선포식을 동시 개최했다.

전주캠퍼스에서는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남천현 총장과 유희태 완주군수, 교무위원, 학생 및 교직원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진주캠퍼스에서도 미래센터 1층 김주영홀에서 오석홍 부총장과 학생 및 교직원 등 150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은 식전 행사로 ESG 특강과 플로깅(Plogging) 안내, 1부 ESG 비전 선포 2부 지역 상생협력 플로깅 전개로 진행됐다.

우석대학교의 이번 ESG 비전 선포는 대학 운영에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반영해 지역 대학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로 플라스틱 · 제로 이산화탄소 · 제로 불룩의 3 ZERO'를 세부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석대는 국제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전주캠퍼스 생활관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설치했다.

더불어 △일회용품 리사이클링 선순환 체계 구축 △총학생회 주축 플로깅 상설화 등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역사를 돌아보다'

내일 전북대 사학과 70주년 기념식

동문 특강 · 장학금 전달 등 진행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학과장 장준갑)가 학과 설립 70주년을 맞아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사학과, 그 역사를 돌아보다'라는 주제로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학과 개설 70년 만에 처음 열리는 대규모 행사로, 사학과의 70년 발자취를 공유하고 사학과의 100년을 준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사학과 교수와 재학생, 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70주년 기념식이 진행된다. 사학과 장준갑 학과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총동창회장의 축사, 권익현 부안군수(79학번)를 비롯한 사학과 동문들의 축하 메시지가 담긴 영상이 상영될 예정이다. 더불어 사학과 70년의 역사를 정리한 연혁 표, 감사패 시상 및 재학생 장학금 전달식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동문인 전주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홍성태(88학번), 전

북경찰청 총경 이인영(88학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은이(94학번)씨 등을 초청해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사학과 70주년 기념 학술경전대회에서 수상한 2개 팀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사학과는 70주년 기념 장학금 모금 운동을 통해 5,410만원을 발원지원재단에 기탁했다. 이 기금은 사학과의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장준갑 학과장은 "전북대학교 사학과가 여느덧 70년을 맞았다. 이번 행사가 사학과 70년의 역사를 공유하고 추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학과는 지난 1951년 설립된 후 1952년에 신입생을 맞아 지금까지 2,2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다. 70년간 연구와 교육 양면에서 큰 성과를 축적하며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국 굴지의 사학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손 씻기 · 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